황금률, 받기 전에 주지마라

(마태복음 7:7~14)

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황금률, 받기 전에 주지마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황금률, 받기 전에 주지마라'
본문 12절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는 구절은 황금률이라 불리는 말씀입니다. 황금률이란 변하지 않는 최고의 규칙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로 표현된 모세오경과 구약의 모든 예언서 전체의 내용을 총괄하는 최고의 규칙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률에는 받기 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는 달리 절대로 주지 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 말씀을 알면서도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두 가지 경향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황금률을 찾으려 함이고 두 번째는 황금률 자체에 대한 오해입니다.

첫 번째는 황금률을 삶에 적용하기보다는 환경에 맞는 새로운 황금률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관계의 황금률, 자녀양육의 황금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의 황금률, 합

격과 면접의 황금률, 거래성사의 황금률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시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한편 율법과 예언서는 바른 신앙에 대한 강조 외에도 이 땅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전반에 대한 규칙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말씀하신 황금률의 말씀도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삶에서 겪는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법칙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들이 제시한 모든 규칙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삶에서 이 말씀만 지킬 수 있다면 그야말로 황금이 됩니다. 부부관계, 부모자식과의 관계가 황금 관계가 되고 직장생활도 황금의 관계가 됩니다. 거래처 직원과의 관계도 황금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문제나 재정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영역마다 다른 황금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황금률 하나로 모든 관계를 황금의 관계로 바꾸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마이더스 왕이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해주신 황금률로 관계하는 모든 영역들은 가장 최고의 황금의 관계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황금을 좋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황금률을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영역마다 별도의 황금률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어떤 규칙을 붙잡아야 성공하고 삶의 보람을 얻을 수 있을지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결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핏 이해가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재정과 관계된 문제에서 사람을 만날 때에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적용하기에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관련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황금률이 적용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니다.

황금률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황금률 자체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타적 정신에서 비롯된 헌신 희생 양보 등으로 연관시켜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황금률을 일상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결정적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죄를 가진 인간은 누구도 이타적이 될 수 없기에 그 누구도 진정한 의미의 헌신과 희생과 양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타적 정신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황금률은 적용될 수 없는 규칙입니다.
또 기독교에서 황금률이라고 하니 다른 종교들의 경전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음을 두고 동일선상에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에도 "나를 위하는 만큼 남을 위하지 않는다면 신앙인이 아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불교는 "내게 해로운 것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 하였고, 힌두교는 "내게 고통스러운 것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유교에서

도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타종교에서 제시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성경의 황금률이 우위를 차지함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유교의 공자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식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희생이 강조되고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이 황금률이라면 공자의 말씀은 은률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와는 완전히 어긋난 것입니다.
단지 표현상의 유사성으로 인해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를 두고 판단하려했기에 이러한 오해가 생겨났고 예수님의 황금률을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없는 이론상의 황금률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바로 이해함을 통해 두 가지 오해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그러므로’라는 부분입니다.
이전에 주기도문을 살펴볼 때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의미하는 전제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에서 전제된 내용을 함께 이해하지 않는다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는 우리가 읽은 7~11절까지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들의 내용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말씀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12절의 황금률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달라집니다. 주기도문을 살펴볼 때에 “그러므로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이해를 도왔던 것처럼 “그러므로 황금률”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에 황금은 좋아해도 황금률의 말씀은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는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황금은 변질됨이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황금률이 적용되는 삶은 황금 같은 관계들로 채워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살펴볼 “그러므로 황금률”의 의미를 파악하고 실천함을 통해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를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을 황금 같은 최고의 관계들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므로’를 잊어버리게 되면 말씀을 오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악함을 잘 알고 계시기에 지킬 수 없는 황금률이라면 주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고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에도 죄 많은 인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죄악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 된 존재인 내가 예수님의 황금률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전제하고 있는 의미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오히려 황금률을 적용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앞서 잠깐 살펴보았던 7~8절을 다시 한 번 살펴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 9~11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설령 도둑이든 강도든 사기꾼이든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분명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12절의 황금률의 말씀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는 사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매일매일 이것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구하고, 구하기 위해 찾아다니고, 받기위해 두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강약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삶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한 마디로 욕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인간이 이러한 욕구를 통해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사상가들이나 종교인들이 이 욕구에 대해 일찍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욕구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결론이 제 각각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성적인 욕구의 발현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힘이 생성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칼 마르크스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을 살게 하는 힘의 근원이 돈이라고 생각했고 돈은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자본주의자들은 힘의 근원이 똑같이 돈임을 인정은 하지만 표출하는 방식을 반대로 생각하여 돈은 능력대로 주어져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찰스 다윈으로부터 시작해서 리처드 도킨스에 이르는 진화론자들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개선과 향상의 욕구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데카르트 같은 합리주의 철학자는 확실한 인식에 대한 욕구야말로 사람으로 하여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는 힘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니체 같은 무신론자들은 인간의 활동은 오직 권력에 대한 욕구에 있다고 보았던 반면에, 일찍이

공자는 경천사상에 입각한 윤리적 자기완성이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노자는 자연과의 합일에 대한 욕구를 주장했고, 석가모니는 고통의 집착으로부터 해탈의 욕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다양한 관점을 통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을 해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해석이 진실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이런저런 수많은 결핍이 아닌 단 한 가지 결핍으로 인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써 인간의 욕구가 어디에서 생기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대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정답을 살펴보기 전에 이에 가장 근접한 해답을 주장했던 사람이 있다면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 안에 답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너 자신을 알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 또한 정확하게 인간의 욕구의 원인을 지목하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결핍으로 인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욕구가 발현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크기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9~30절에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라고 하셨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이시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곧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인간에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욕구가 발현되는 이유는 하나님 크기로 지음 받은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 욕구하는 힘이 왜곡되게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성적인 욕구, 권력에 대한 욕구, 발전과 개선에 대한 욕구, 깨달음에 대한 욕구 등으로 왜곡시킨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0만 원짜리 뷔페를 위해 아침도 거르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급하게 일을 하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뷔페를 포기하고 회사에 가서 일을 처리하며 대충 컵라면으로 때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10만 원짜리 뷔페라면 세상의 가치들은 컵라면입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 컵라면이라도 먹어야 하듯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마음의 결핍을 성적인 욕구로 채우려하고 권력으로 채워보고자 하고 발전이나 개선 등을 통해 채워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제대로 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부자 되기 원해서 돈을 구했고, 좋은 결혼 상대를 찾았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찾고 두

드렸지만 전부 틀렸음을 강조하시기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을 반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가질 수 있어야 좋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나를 기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뜨거운 감자처럼 먹을 수도 없고 들고 있을 수도 없다면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것이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며 가졌을 때 기쁨과 만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을 성령님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기능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능력이 생겨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서울에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강릉에 있다면 내 마음 안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천국 보좌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대면하는 모든 관계들이 마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재하는 대상과 내 마음에 들어오는 대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마음에 담아도 실제 자녀를 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모습이 담길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으로 담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담기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담기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얻게 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으라고 말씀하신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신 이유는 본래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진 내 마음을 완전히 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채워진 마음에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알고 나면 이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는 말씀도 바르게 해석이 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는 것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그러므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만족을 주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얻을만한 좋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을 받았다면 타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기쁨과 만족을 주는 유일한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뿐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으신 하나님을 받게 될 것이기에 삶의 욕구는 완결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타인에 대해서 더는 기쁨과 만족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보고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가 황금처럼 값진 관계가 되어 가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을 받고 난 뒤에 그 기쁨과 만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25절을 보면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좋음을 받고 계셨기에 사람들의 추종을 바라시지도 않으셨고 추종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기쁨과 만족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실 필요가 없으셨기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시기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같은 삶의 모습이 부족한 우리에게서도 일어나야만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고작 돈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다는 것일까요? 주님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욕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프로이드의 주장처럼 성적욕구를 힘으로 삼아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나 자본주의처럼 돈에 대한 욕구를 힘으로 삼을 필요도 없으며, 니체의 말처럼 권력을 향해 달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다윈이나 도킨스 같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개선과 향상을 욕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크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정으로 좋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뿐이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오시기 전에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내신 길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마음이 하늘로 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채워질 것이고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기쁨과 만족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사람은 주는 대상이지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배우자든 자녀든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원수를 만

날지라도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원수에게도 좋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좋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원수가 사라지기를 바라고 원수에게 교통사고가 나기를 바라고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표현될 뿐입니다.

이처럼 황금률의 말씀은 '그러므로'가 해석되지 않으면 삶에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시며 좁은 문과 좁은 길의 비유를 말씀해주십니다.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한 주석을 한번 읽어보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부터 끝까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은 어려웠으나 나중에는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좁고 협착한 삶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비장한 각오와 결단을 내린 사람은 그것이 끝이 아니요 고난의 시작임을 깨닫고 매순간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이 요청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좁은 문과 좁은 길 비유에 대한 주석들의 대동소이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이와 같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30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고 20장 21절에서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셨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의 비유는 문맥적으로만 놓고 보아도 결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의 반대는 넓은 문과 넓은 길입니다. 쉽게 말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넓은 문과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이야 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대 땅에 살면서 율법에 매여 사는 자들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율법에 매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돈 번다, 저렇게 해야만 성공한다는 말들이 다 세상적인 율법이 되어서 우리를 옭아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율법에 매여서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넓은 문과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자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오히려 쉼을 얻으면서 가볍게 가는 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5,500만 명이 대통령이 되기

를 소원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되는 것은 언제나 한 명뿐입니다. 실로 넓은 길이지만 끝까지 통과할 자는 한 명 밖에 없는 셈입니다.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개의 일들이 경쟁과 싸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은 5,500만 명이 각자 갈 수 있는 5,500만 개의 길입니다. 내가 가는 좁은 길을 배우자가 걷기를 바란다면 서로 어깨를 부딪치며 경쟁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좁은 길을 가듯이 배우자도 그 사람만의 좁은 길을 예수님께서 제공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좁은 길은 쉬면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이 비유가 바로 앞에서 보았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과도 연관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아갑니다. 좋은 것은 가질 수 있고 가졌을 때에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의 의미도 확실해집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좋음의 대상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결코 좋은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는 주기만 하는 삶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의 삶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모든 관계를 황금으로 만드는 황금률의 방식입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은 하나님이 아닌 돈 건강 승진 취직 등과 같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닥치는 대로 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닥치는 대로 좋은 것을 삼기에 넓기는 하지만 누구도 행복할 수 없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기를 바라지만 국회의원 되고 난 후에는 매일 당 안팎에서 싸웁니다. 설령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애당초 행복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넓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을 뿐이지 결코 좋음과 기쁨과 만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와 모스크바를 잇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는 10,00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8일 동안을 달리며 거의 60개 넘는 역을 거치고 지나는 터널과 교량의 길이만도 10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철로의 폭은 고작 1m남짓입니다. 넓디넓은 시베리아 벌판을 1m남짓한 폭의 철로가 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좁은 문과 좁은 길 비유의 의미와도 상통합니다. 시베리아 벌판은 넓은 문과 넓은 길입니다. 이 벌판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지만 넓은 길에서 헤매는 동안 결코 모스크바에 도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철로는 고작 1m 밖에 안 되는 좁은 길이지만 확실하게 시베리아 벌판을 뚫고 모스크바에 8일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눈이 내리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기차 안의 승객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철로는 시베리아 벌판에 비해 너무나 좁은 길이지만 모스크바에 도착하는 유일하고도 편안한 길입니다. 그러나 기차가 레일이 좁다고 레일을 벗어나 시베리아 벌판으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뻔합니다. 10m도 전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부관계가 이토록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날처럼 자녀를 일곱 여덟씩 낳는 것도 아니고 한둘 낳아 키우는데 이렇게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넓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차가 푹푹 빠지는 모래사장에서 달리는 것처럼 삶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목적지와는 상관도 없는 곳으로 향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음이 추구하는 진정한 목적지는 기쁨과 만족인데 넓은 문과 넓은 길을 가는 삶에서는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매우 중요한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7~8절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과 12절의 '그러므로'의 말씀, 13~14절의 좁은 문과 좁은 길의 비유가 황금률의 말씀의 의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하기 위해 가야 하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서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뿐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구하고 싶다면 우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좋으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주님께서 내신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의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조건 이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받게 되면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좋은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줄 돈이나 권력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 있는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복음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다니며 자신들의 몸을 버려가면서 복음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서는 무엇도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내신 좁은 문과 좁은 길의 생각으로 하나님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므로 황금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에는 좋은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에서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고백을 통하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인간관계에서 황금률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황금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만이 좋으신 분임을 고백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모든 관계를 황금 관계로 만들어 갈 때에, 주기도문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이 말씀해주신 황금률 하나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좋으신 분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에 전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가 황금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